

313명 시민의 증언으로 재구성한 '12월 3일, 그날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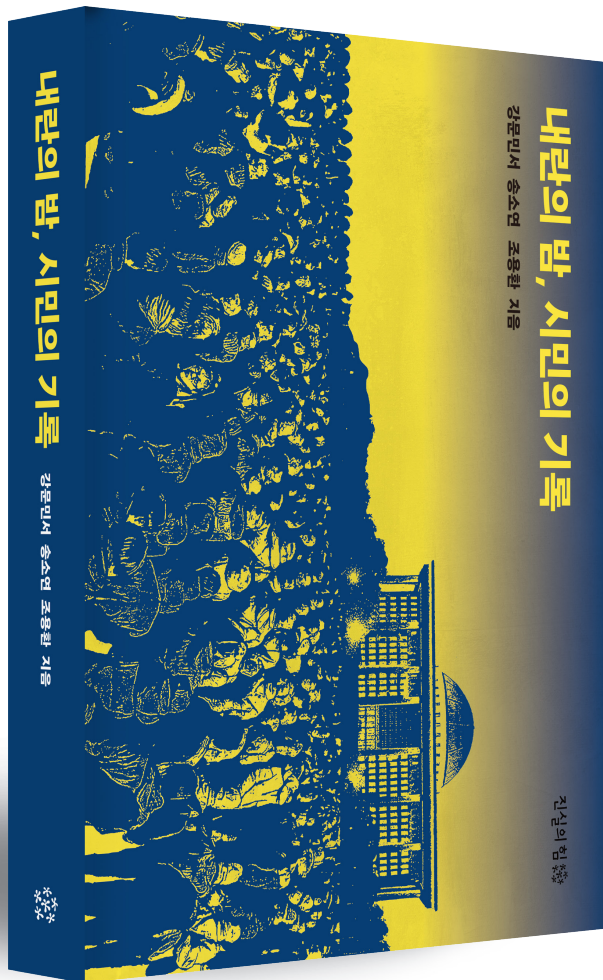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

강문민서 송소연 조용환 지음

진실의 힘 | 2025년 12월 3일 발행 | 22,000원

448쪽 | 147×215mm

ISBN 979-11-985056-8-2 03300



“진짜 모르겠네. 왜 나갔지? 양심 같은 거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가져야 되는 양심…….”

“위험하다면 제가 그 앞에 있는 게 낫죠.
살 만큼 살았으니 희생돼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더라도, 군인들이 들어가는 걸
한 걸음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암울한 세상에서 빛을 발견한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왜 무너졌는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란의 밤, 313명 시민의 목소리로 재구성한 최초의 시민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 문장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은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가 내란군을 막아낸 시민 313명의 증언을 기록한 책이다. <진실의 힘>이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313명을 면담하고 A4 용지 1만여 장의 녹취록을 분석해 만든 최초의 시민사(people's history)다.

국회 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민들은 왜 집을 나섰는지, 어떤 두려움·분노·연대가 길 위에서 피어났는지를 구체적 장면과 육성으로 기록했다. 이 책은 단순한 사건의 재현을 넘어, ‘광주’ 이후 처음으로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된 밤”을 집단적으로 복원해낸 기록이다.

“그날 밤, 국회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란 세력은 ‘평화로운 계엄’ 운운하며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그 주장에 답한다.

313명의 심층 인터뷰, 현장 사진과 영상, SNS 대화 기록, 내란사건 공소장을 토대로 그날 밤을 복원했다. 경찰버스와 기동대로 봉쇄된 국회, 707특임단을 실은 블랙호크 헬기 3대가 국회 상공을 뒤흔든 순간 시민들은 “아, 진짜 죽이러 왔구나”, “광주 어게인이다!”라고 생각했다. 야간투시경과 소총으로 무장한 707특임단의 의사당 난입, 국회 담을 넘어 침입하려는 1공수여단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로텐더홀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 핀을 뽑은 채 스크림을 짖 보좌진들. 이 책은 내란의 밤에 대한 증거이자 증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강철부대W>를 보던 시민들은 자막에 뜬 “비상계엄”을 방송 CG 사고로 착각했다. 유튜브를 보던 시민은 “딤페이크 아니야?”라며 검색을 반복했다. 그러나 사실임을 확인한 순간, 두려움을 물리치고 일어섰다. “내가 대신 몸빵을 해서라도 시간을 좀 벌어야지.”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은 길 위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연대의 마음을 느꼈다. 지하철 9호선, 한 시민이 외쳤다. “지금 국가 침탈당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 시민이 답했다. “저도 갑니다!” “저도요!”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은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그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거쳐 ‘시민’이 됐는지,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지를 담았다. 12월 3일 국회 앞으로 달려간 이들은 정치적 성향·성별·세대·직업·지역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공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바로 12·3시민이다.

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시민들은 무엇을 지키려 한 것일까? 313명의 목소리는 겸손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사회는 구체적이다. 극심한 불평등이 해소되고, 약자가 보호받으며, 혐오 대신 연대가 작동하는 사회. 시민이 다시 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

“약속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인간 사회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섬을 만드는 행위다.” 313명의 시민은 12월 3일 밤의 기억과 함께 정치에 대한 요청을 던진다. 혐오가 아닌 공공선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정치,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국회와 민주정부는 시민의 헌신이 낳은 민주주의를 제도적 약속으로 완성해야 한다.

“광주가 12·3을 불러냈듯이 12·3은 또 다른 세대를 부를 것이다”

‘80년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도덕적 뿌리라면, 12·3시민은 그 뿌리를 현재로 이어온 사람들이다. 이 책은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체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며, ‘광주’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 정신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록해주십시오. 기억해주십시오. 두고두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시민들은 12월 3일 새벽 이렇게 말했다. “1980년 기록이 살아남아 2024년을 구했듯, 우리의 이야기가 미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한 시민의 말은 313명 시민의 생각을 대변한다. 기억은 개인의 것이지만, 말하는 순간 공적 세계가 된다. 이 기록은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될 것이다.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은 모두 5부로 구성됐다.

1부 ‘결단의 순간’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공포가 결단으로 이어지고, 전국 각지에 동시다발적 공분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정리했다.

2부 ‘국회로 가는 길’은 길 위에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과 연대를 그렸다.

3부 ‘내란을 막아내다’는 국회 앞과 국회의사당 안에서 내란군 및 경찰과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절박한 저항을 기록했다. 그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그들에게 ‘12·3시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4부 ‘그들은 누구인가’는 313명의 삶을 통해 ‘12·3시민’의 형성 과정을 살펴봤다.

5부 ‘12·3시민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들이 본 내란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정리했다.

부록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2·3시민 313인이 전하는 한마디’가 담겨 있다.

저자 소개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5·18 선생님들의 회복과 성장의 길에 함께했다. 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으로 혐오차별 대응 및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송소연 <진실의 힘> 상임이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 인권피해자들의 삶에 함께했다. ‘조작간첩사건’ 진실규명 활동을 거쳐 <진실의 힘> 설립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조용환 <진실의 힘> 이사, 법무법인 경 변호사. 한국의 법이론과 실무에 국제인권규범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변론해왔다. 『안데스를 건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공저)을 쓰고 『허위자백과 오판』을 번역했다.

이 책을 펴낸 <진실의 힘>은 ...

진실의 힘 출판사는 한국 사회가 겪는 근원적 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과거사, 법학, 사회운동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을 기획·출간하고 있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박상은), 『광장의 역설』(빈센트 베빈스 지음·박윤주 옮김),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한스 페터 그라베르 지음·정연순 옮김), 『히틀러의 법률가들』(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박경선 옮김), 『일본의 전쟁범죄』(김재명), 『야만의 시간』(김종철), 『옥중 19년』(서승) 등을 출판했다.

책 속으로

“저 씨발 새끼!”

어머니의 입에서 날카로운 쌍욕이 터져나왔다.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다. 옥채원은 잠이 확 달아났다. 그날 아침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터라 시차 때문에 종일 자다깨다를 반복하던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다. 어머니의 시선이 향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3쪽)

“아니, 이거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이네! 이런 세팅까지 한단 말이야?” 여성단체 활동가 송란희는 아버지 생신모임을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다. 늘 야근에 시달리던 그는 오랜만에 집에서 TV를 볼 수 있어 즐거웠다. 채널A의 <강철부대W>. 국군 최정예부대의 여군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겨루는 전투·전략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 예비역의 인터뷰 도중 TV 하단에 자막이 떴다. “윤 대통령 긴급 브리핑…… ‘헌정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 (14쪽)

“내가 알고 있는 계엄의 뜻이 다른가?” 유튜브로 뉴스를 보던 김혁중은 화면에 뜬 “비상계엄 선포” 자막을 보고 처음엔 방송사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 “페이크”라고 생각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자신이 알고 있는 계엄의 뜻이랑 다른가, 헛갈리기까지 했다. 검색을 해보고서야 “진짜 계엄”임을 확인했다. (15쪽)

국회로 가겠다는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따라나선 정우진은 운전대를 잡은 팔이 덜덜 떨렸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겠다.” (73쪽)

이남표가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간다고 알려주자 아내는 자기도 가겠다고 했다. 이남표는 말렸다. 중학생 딸 때문이었다. “애도 아직 어린데 집에 있어라. 누군가는 애를 키워야 하지 않냐? 부모가 다 없으면 어떡하냐? 하다못해 둘 다 끌려가면 애 밥은 누가 챙기며, 당장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어찌냐?” (79쪽)

택시 안에서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나는 지금 처단당하러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친 이규호는 “아버지,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국회를 지키러 여의도로 갑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80쪽)

함철성은 “저들이 계엄을 성사시키려면 당연히 국회를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해 지하철을 탔다. 국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재명 라이브>를 뒤늦게 보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동작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40대 후반의 여성이 외쳤다. “지금 국회가 계엄군들에게 침탈당

하고 있으니 국회로 향해주십시오!”

“저희도 국회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요!” “저도 가요!” 그 말을 들으니 신기하게도 공포심이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97쪽)

황인선을 태워다준 기사도 택시비를 받지 않았다. “아저씨 저, 국회 앞으로 가주세요”라고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순복음교회 근처에 내리면서 돈을 꺼내자 기사는 “그냥 가세요, 몸 조심하십시오” 하고 떠났다. (102쪽)

가정주부 권민성은 남편 백경진과 지하철을 탔다. “생각보다 이 밤에 사람이 좀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더니 6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로 걸어갔다. “아,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였네.” 전율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과 비장한 감정이 밀려왔다. (108쪽)

“걸어가는데…… 딱 봐도 ‘국회 간다, 저 사람’이 있었어요. …… 그 사람도 저 보고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길이 정말 겹치는구나’ 하고 가는데, 점점 갈수록 그런 인파가 확확 늘어나는데, 1명,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2제곱, 3제곱씩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아, 나는 지금 위험한 데 가지만 결과적으로 위험해지지는 않겠다.’”(김현지, 회사원) (113쪽)

“5·18이나 4·19처럼” 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빨리 지금 이 일을 해결해야” 하므로 “일단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무조건 들여보내야 한다”(이현숙)는 자각이 전국 모든 시민의 가슴에 동시에 새겨졌다. 한 시라도 빨리 국회 앞으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엄군의 난입을 막는 것이 모든 시민의 유일한 목표이자 간절한 희망이 됐다. (116쪽)

계엄은 시간 싸움이니까…… 일단 국회를 빨리 막으면 그거는 1분을 벌면…… 개네들의 10분을 늦춘다.(전유섭)

무슨 수를 써서라도 틀어막아야 된다.(이현무)

국회에 들어가는 재들을 막아야 한다, 나라도 가서 군부대가 난입해서 국회를 정지시키는 것을 막아야 된다.(이해승)

국회의원이 만약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내가 대신 몸빵을 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지.(임동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가서 내가 엎드리면 엎드리고, 발판이 된다면 발판이 돼서 무조건 넣어줘야겠다.(이현숙)

(117쪽)

“두두두두!” 공기가 찢어지고 밤하늘이 진동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아, 진짜 죽이러 왔구나…….” 김은결은 하늘을 올려다본 채 중얼거렸다. (147쪽)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씨발!”

여기저기서 욕설과 탄식이 터졌다. ‘내란’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눈앞에 닥쳐왔다.

김희태는 헬기 소리를 듣는 순간 광주를 떠올렸다. 몸이 저절로 낮춰졌다. “우리를 향해 총을 쏘겠구나.” 그런데 헬기는 국회로 향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구나…….” (148쪽)

이대훈은 옆에서 펄펄 우는 동년배를 봤다. “광주를 경험했거나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겠죠. 주변에서 그를 위로했지만 말을 못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분을 보며 ‘광주 어제인이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148쪽)

김동휘는 그때가 가장 공포스러웠다. “차량이야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지만 헬기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149쪽)

국회 경내에서는 안보람이 닫히려는 철문에 매달려 있었다. 갑자기 “두두두두” 소리가 들렸다. 훗날리는 눈발 사이로 검은 헬기 3대가 나타났다. “영화인가?” 잠시 헛웃음이 났지만 헬기가 국회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의사당을 향해 전력질주했다. “어후, 어후, 씨발!” 거친 숨소리가 헬기 소리에 묻혔다. (150쪽)

여의도공원에서도 시민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진짜 정말 큰일이다!” 허원과 박상만은 “큰일이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국회 쪽으로 달렸다. (150쪽)

“군인들이 담을 넘어가요! 들어가지 마!” 0시 30분경, 국회 2문 옆 수소충전소 방향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1공수여단 병력이 국회 담을 넘고 있었다. (203쪽)

순식간에 시민들이 몰려왔다. 담을 넘으려는 군인들과 막으려는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역사에 반역자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말이 되냐고!”

“넘어가지 마세요!”

“못 가요!”

“어느 나라 군인이냐!”

“개새끼들아!”

아우성과 욕설, 비명, 설득의 말이 뒤섞였다. (203쪽)

몸과 몸이 부딪히는 동안 누군가는 군인을 때렸고, 누군가는 “때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젊은 남성이 욕을 퍼붓자 나이 지긋한 시민이 그러지 말라고 달랬다. 박미정에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군인들이 이 정도로 소극적인 것은 의지가 없는 거라고, 군인들도 명령받고 와서 그런 것이니 자극하지 말라고. 자극해서 좋을 게 없고, 자극해서 흥분하면 다치는 것은 우리라고 말리셨어요.” 한 중년 여성은 군인을 붙잡고 울었다. “이러지 말라고, 이거 나쁜 거라고,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204쪽)

‘쿵 쿵 쿵.’

망치로 유리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계엄군이 망치(전체 길이 약 40센티미터)와 소총 총구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있었다. 첫 번째 창문에 이어 두 번째 창문에도 금이 갔다. 707특임단장 김현태는 부대원 18명과 함께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215쪽)

야간투시경을 쓴 707특임단원들이 유리 파편을 밟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게 진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맞나?” 군인 1명이 노경배의 멱살을 잡았다. 놓으라고 소리치며 “니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맞냐? 태극기 떼라, 니들이 태극기 달 자격이 있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216쪽)

“군인이 들어온다!”

비명이 터졌다. 707특임단이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MBC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다. 로텐더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0시 40분 보좌진과 직원들은 본능처럼 움직였다. 로비 한쪽에 있던 KBS 책상을 끌고 와 출입문 앞에 세우고, 벽에 고정된 소화전 호스를 끌어와 문 손잡이를 묶었다. 급히 만든 바리케이드였다. 복도 저편에서 완전무장한 707특임단 병력 18명이 소총을 들고 달려왔다. (218쪽)

“이쪽이다!”

2층에서 밀려난 707특임단 병력이 어느새 3층 로텐더홀 옆 복도에 나타났다. 유리문을 지나 로텐더홀로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이 본회의장 문이었다. 내란군 병력이 본회의장 코앞에 닥쳤는데 그곳은 아직 바리케이드도 쌓지 못한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혼비백산한 보좌진이 달려들었다. 상현호는 내란군의

총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혔다.

“어디 감히 총을 들고 들어와요? 어디 감히!” (219쪽)

0시 48분, 707특임단을 실은 블랙호크 3대가 또다시 국회 후문 운동장에 착륙했다. …… 같은 시각, 1공수여단 제2대대 병력 122명도 경내로 침입했다. …… 1공수여단장 이상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쪽으로 들어가라.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라.” 곧이어 이상현은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추가 명령을 내렸다.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 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 못하도록 해라.” (222쪽)

로텐더홀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언제, 어디서 계엄군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윤상은은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모아 본회의장 앞에 스크림을 짰다. 모두 4겹이었다. ……

보좌진은 스크림을 짜고, 소화기를 줄지어 세웠다. 안전핀은 이미 뽑혀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할 각오였다. 맨 앞에 선 윤상은에게 남은 생각은 하나였다. “여기가 뚫리면 끝이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몇 분만 더 버티자” 이를 악물었다. 1분, 1초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 영원 같았다. (225쪽)

내란의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나간 12·3시민은 성별과 나이, 직업, 거주지역, 정치적 지향과 지지 정당, 성정체성, 경제 수준과 학력 등 평소 사람들을 구분하는 범주들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04쪽)

내란의 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문하던 시민들에게 ‘5·18 광주’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억의 원형이자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310쪽)

성경현은 일상에서 “작은 형태의 계엄”을 겪는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아침에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날마다 먹고살 걱정으로 눈을 뜨는 사람들,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작은 소망을 지키려다 공권력에 치이는 이들의 일상이야말로 ‘계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고공농성이나 여러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례다. 군인과 총, 명령은 사라졌을지라도 거리의 천막농성장, 누군가의 삶은 여전히 예외상태에 놓여 있다. (389쪽)

12월 3일 국회 앞 시민이 도달한 감정 상태는 ‘민주주의의 커뮤니티스’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커뮤니티스를 통해 민주주의가 재생하는 장면이었다. (401쪽)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저 옳다고 믿은 일”, “머릿수”나 “쪽수”를 보탠 것, “n분의 1”을 한 것, “시민군 2”의 배역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12·3시민’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모습이자 실체였다. (402쪽)

제일 많이 지목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였다. 청년세대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년층, 여성 등 취약계층의 삶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냉소와 분노를 조장해 극우세력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불안한 징조로 보았다. (405쪽)

12월 3일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됐다. 시민이 지켜낸 국회와 그 덕분에 출범한 민주정부는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의 섬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그 약속의 섬이다. (415쪽)

민주주의를 지키는 실천은 행동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성찰하고, 전승해야 한다. 12·3시민은 내란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증언하고 전승하는 기록의 주체다. (416쪽)

광주가 12·3시민을 낳았듯 12·3시민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약속의 정치로 뒷받침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스스로 쇄신하며 자신을 구원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12월 3일의 기록이 ‘일회적 사건의 연대기’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윤리를 전승하는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17쪽)

차례

서문 내란의 밤, 시민들의 이야기

1부 결단의 순간

- 1장 고요한 밤
- 2장 깨어 있는 사람들
- 3장 정의로운 분노
- 4장 정당·노조·사회단체 그리고 책임자의 자리

2부 국회로 가는 길

- 1장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다
- 2장 멀리서 온 사람들
- 3장 길 위의 만남, 연대의 예감
- 4장 국회 앞 만남과 연대
- 5장 그들을 움직인 것

3부 내란을 막아내다

- 1장 국회를 봉쇄한 경찰
- 2장 블랙호크와 계엄군 국회 침입
- 3장 맨몸 바리케이드
- 4장 대오를 갖춘 시민들
- 5장 최후의 저지선 로텐더홀
- 6장 계엄 해제 의결과 ‘2차 계엄’
- 7장 잠들지 않은 새벽

4부 그들은 누구인가?

- 1장 ‘12·3시민’의 얼굴
- 2장 시민은 어떻게 탄생되는가?
- 3장 다시 만날 세상

5부 12·3시민과 민주주의의 미래

- 1장 12월 3일과 ‘광주’
- 2장 시민들이 본 한국 민주주의
- 3장 약속의 정치와 기억의 전승

12·3시민 313인이 전하는 한마디

참고자료

감사의 말